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를 통해 본 악(惡)의 의미와 양상

강지연*

<차 례>

1. 머리말
2. 악(惡)의 개념과 악행(惡行)의 양상
 - 1) 악(惡)의 출현: 결핍과 탐욕의 문제
 - 2) 악행(惡行)의 세 가지 양상
3. 신화의 논리로써 악(惡)의 메타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신화가 인간에게 행위 규범을 마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무속신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행위 및 그 행위의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악(惡)에 주목하였다. 제주도 본풀이에 등장하는 신화의 주인공들은 악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피하는가를 살피기 위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에 주목하여 악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무속에서 악을 다스리는 사유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무속이 추구하는 선(善)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승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이야기인 <천지왕본풀이>를 통해 소별왕의 기만 행위는 탐욕을 부추기는 결핍의 감정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승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는 탐욕과 함께 파괴의 힘을 수반하는 폭력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속신화에서 악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악인으로 지목받는 악행 외에도 부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 윤리에 어긋난 무책임한 행위와 신을 바르게 섬

*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시간강사

가지 않는 무지한 범인(凡人)의 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악행에서 공통적으로 결핍이 야기하는 문제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악은 공통적으로 사회공동체, 가족공동체, 신앙공동체의 존속을 방해한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신들은 이러한 악의 형상을 통해서 선한 것의 가치를 일깨우며, 인간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과 무속이 중시하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 준다. 이로써 사회와 가족, 신앙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며, 무속이 추구하는 세계의 본질을 다룬다.

□ 악(惡), 악행(惡行), 제주도 본풀이, 공동체, 질서, 무속, 세계관

1. 머리말

무속신화는 신이한 존재의 행적에 의거하여 인간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準則)을 마련한다. 이는 ‘무속’이라는 종교적 성격과 ‘신화’는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는 수용자의 믿음에 근거한다. 또한 무속신화는 반드시 의례라는 행위를 수반하며 엄격한 의례 절차에 따라 구송되기에, 무속신화가 전승되기 위해서는 의례에서 지켜야 하는 일정한 행동 규칙이 강요된다. 그동안 신화와 제의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무속신화의 연구는 신화의 내용과 더불어 의례 안에서 지켜야 하는 행위들, 가령 형식적 절차와 의례의 방법에 관한 연구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신화의 전승집단이 소유하는 무속의 세계관은 무속 의례 뿐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행동과 규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례와 종교로부터 소유하는 방식은 현실 세계의 규범, 제도, 규칙 등 무속 문화의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신화에서 악으로 규정 짓는 것은 인간에게 기피의 대상이자 이를 경계

(儆戒)하여 삼가야 할 것임을 말해 준다. 여기서 악(惡)한 것을 멀리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선(善)한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의례의 참여자들이 의례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도 상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의례와 무속신화의 전승은 그것이 경험 세계의 질서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이때 신화가 제시하는 악의 속성과 의미는 전승 집단에게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질서와 무질서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어 준다.

일반적으로 악(惡)의 개념은 선(善)과 반대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도덕적 의미로 한정하여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자어로 ‘惡’에 대한 의미는 더욱 많은 의미를 함의한다. 가령, 악의 개념에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다, 추(醜)하다, 흉(凶)하다, 미워하다, 험뜯다, 기피(忌避)하다, 불길(不吉)하다, 비방(誹謗)하다’ 등 선악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악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쁨. 또는 그런 것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도덕적 기준’이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전에서는 도덕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정의를 참고하면 악이란 도덕적인 양심과 여론,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양심과 여론, 관습 따위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문화적인 요소의 것이므로 이에 따라 악에 관한 정의는 사회가 무엇을 악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문화적, 신학적, 철학적 관점마다 악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동안 문학에서 악에 관한 논의는 주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인(惡

1)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人)에 주목하여 논의되었다. 신연우는 제주도 일반신본풀에 등장하는 악행(惡行)의 유형과 대응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는 ‘탐욕, 여성에 대한 성적 횡포, 하층민에 대한 겁박, 그리고 살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악은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악’이며, 구체적으로 악행은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 등 타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어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행위’²⁾라고 보았다.

이지영은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악행에 주목하여 악인형 여성 인물의 전형성을 논의하였다.³⁾ 노일의 행위를 통해 악인형 여성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유혹을 즐기는 여성과 감정을 표출하는 여성, 살림을 잘 못하는 여성,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여성, 사람을 죽일 줄 아는 냉혈적인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신연우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노일이 여산부인을 죽이고, 전실 소생의 일곱 형제를 죽이려 했다는 ‘살인’ 행위에 주목하여 현실에서 일어나는 악행이 신화의 악행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는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악의 개념으로 법적, 윤리적으로 어긋난 악인의 행위를 악이라고 진단함으로써, 현실에서의 경험적 판단으로 악의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엽은 고전 서사물에 나타난 악의 성격을 ‘사악(邪惡), 불순(不純), 나약(懦弱), 무지(無知)’로 규정하고 이에 대처하는 주인공의 양태는 각각 ‘징치(懲治), 폭로(暴露), 계도(啓導)’임을 유형별로 검토하였다⁴⁾. 이 논문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악인의 행위만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로 분명

2) 신연우,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72쪽.

3)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199~233쪽.

4) 이강엽, 『고전서사물에 나타난 악(惡)의 성격과 대처 양태』, 『고전서사의 해석과 교육』, 보고사, 2012, 395~333쪽.

하게 표출되지 않는 불순의 의도와 어리석은 인물이 저지르는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악의 범주로 보아 선악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악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전 서사물에서 그동안 악과 악인에 대해서 다루던 추상적인 설명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논의에서 분석하고 있는 설화나 고소설 등 연구 대상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텍스트 마다 시대적, 관습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지금까지 악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선악을 구분 짓는 윤리학은 물론, 신학과 철학, 심리학 등 다방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처럼 악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관점을 달리하여 다양한 해석으로 논의가 가능하지만, 고전 문학에서는 악인과 악행의 유형을 검토한 논의 이후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선악의 관점에서 악을 이해하는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 본풀이와 의례에서 나타나는 악의 개념을 무속의 논리 안에서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의 범주를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로 한정하는 것은 제주도 서사무가의 내적 원리를 토대로 악의 개념과 양상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제주도에서는 전역에 걸쳐 각 마을의 당신(堂神)을 모시는 풍습이 남아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삶의 주기마다 필요할 때 무속 의례를 행한다. 그들이 의례를 통해 지향하는 바가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속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면, 먼저 무속에서는 무엇을 악(惡)이라고 여기며 이를 기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악의 개념을 드러내는 데 제주도의 본풀이는 의례 문화의 전승력에 기대어 무속신앙과 무속이 지닌 공동체의 의식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승에서 악의 출현을 예고하는 <천지왕본풀이>에 주목하여 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악행이 다른 본풀이에서 비춰지는 악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어 악행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3

장의 논의는 본풀이와 의례의 맥락에서 악이 인간에게 무엇을 기피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무속이 지향하는 세계관의 가치를 기술하고자 한다.

2. 악(惡)의 개념과 악행(惡行)의 양상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성서(Bible)의 해석은 ‘신이 선(善)한 세계를 창조했으나, 피조물이 자유의지로써 이 세계의 질서를 혼란⁵⁾시켰다고 한다. 성서의 해석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원죄(原罪)설을 교리로 삼으며, 유일신(唯一神)만이 곧 선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한국의 서사무가에서 창세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창세신화는 본토의 <창세가>와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인세 차치 시합’ 모티프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각각 석가와 소별왕이 동일한 수법으로 내기에서 이기고 이승을 차지한다. 이후 이승의 모습을 예언하는 미륵과 대별왕의 말을 통해서 이승에서 악한 것의 개념을 표상하는 악인의 악행이 제시되고 있다.

1) 악의 출현: 결핍과 탐욕의 문제

소별왕과 대별왕은 꽃피우기 내기를 통해 먼저 꽃을 피우는 자가 이승을 차지하기로 한다. 이때 소별왕은 자신의 꽃과 대별왕의 꽃을 몰래 바꿔 내기에서 이기고 이승을 차지한다. 대별왕은 아우의 속임수를 알면서도 자신이 저승을 차지하고,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라고 말한다. 이후 대별왕이 들려주는 이승의 모습은 소별왕이 자신을 기만하여 이승을 차지

5) 프랑소와 뽀띠, 강성위 역, 『악이란 무엇인가?』, 이문출판사, 1984, 16쪽.

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는다.

다음의 인용문은 대별왕이 소별왕에게 이승의 모습을 전하는 대목이다.

(가) 설운 성님 대별왕이 말을 하되

“설운 아시 소별왕아 이승법(此世法)이랑 츠지헤여 들어사라마는 인간의 **살인(殺人)**, **역적(逆賊)**만하리라. 고른**도둑(도둑질)** 만리라. 남즈족식(男子子息) 열다섯 썬오세가 됨머는 이녁(自己) 가속 노아두고 놈의 가속 **올러르기(우러러보기)** 만하리라. 예족식(女子息)도 열다섯 썬오세가 넘어가민 이 녀넨편(男便)노아 두고 놈의 넨편 **올러르기** 만하리라.” <안사인 本>6)

(나) 형임이 아시보고 꽃동이를 바꿔놓았다 아니하고

설운 아시금지상법 지녀서 살기랑 살라마는 금지상법은 배에는 **수적(水賊)**도 많고, 므른디는(陸地) **강적(強賊)**도 많고, 유부녀 **통간(通姦) 간부(姦夫)**, 갈런, **살린살이(살인사건)** 많하리라. <고대중 本>7)

(다) 흐 하늘엔 해도 둘, 들도 둘, **육심 센 놈**이 많고, **도적** 적간(敵間)이 있고, **인간이 불목**이 하고, **상괘짓(相避)** 하영 있고, 낭기(나무), 둘 제푸실새라(푸른숲이) **말을 종종** **궤고(말하고)**, 귀신 불령 생인(生人) 대답, 생인 불령 귀신 대답하곡, 스천(네 철의 하늘)이 속신하고, 일가 방문하여 온다.

<이무생 本>8)

먼저 (가)에서는 살인과 역적, 도둑 등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역적은 통치자의 권한을 빼앗아 반역하는 일이며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다. 성인

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45쪽.

7)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민속원, 2013, 119쪽.

8) 진성기,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235쪽.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두고 남의 가족을 우러러 보며, 여자는 남의 남편을 우러러 본다. 이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탐하는 악행을 아우른다. 여기서 제시하는 이승의 모습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물들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나)에서 더욱 구체적인 담화 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별왕은 ‘수적(水賊), 강적(強賊), 통간(通姦), 간부(姦夫), 살인(殺人)’이 많다고 하여 이승에서 악의 출현을 예고한다. 특히 간음과 간부가 많다는 것은 간통을 저지르는 부적절한 인간사의 관계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정을 통하여 탐욕을 일삼는 행위를 보여준다.

(타)에서 이승에는 욕심 많고 도적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불목’, ‘상팻짓’) 귀신과 생인(生人)이 소통하는 모습을 형상한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생기거나, 귀신과 인간이 소통한다는 것으로 이승에서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천지왕본풀이>각 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악행의 양상을 정리하면, 그릇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대상을 차지하려는 행위가 지배적이다. 또한 대별왕이 예고하는 이승에서 사악(邪惡), 재앙(災殃), 흉악(凶惡), 부정(不淨)등 악행을 일삼는 인간들의 군상을 엿볼 수 있다.

인세차지 경쟁에서 마땅히 꽃을 피운 대별왕이 이승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승을 차지하고 싶은 소별왕의 탐욕은 자신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결핍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결핍감은 대상을 차지하고 싶은 더 강한 탐욕을 일으킨다. 이로써 결핍감은 소별왕이 대별왕의 꽃을 빼앗는 악행의 기제로 볼 수 있다.

소별왕이 다스리는 이승에서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행은 소별왕의 탐욕을 구체적으로 형상하며, 결핍감을 충족하려는 발로(發露)로서 시작된 지나친 탐욕이 후속되는 악행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이승을 다스리는 신의 이야기로 소별왕이 어떻게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앞으로 이승에 등장하는 인간사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이승을 관장하는 소별왕은 자신이 피우지 못한 꽃을 대별왕의 꽃과 바꿔서라도 이승을 차지하겠다는 지나친 탐욕으로 이승을 죄와 악으로 물들게 만들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악의 성격과 다른 본풀이에 등장하는 악(惡)을 검토하며 악행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악행의 세 가지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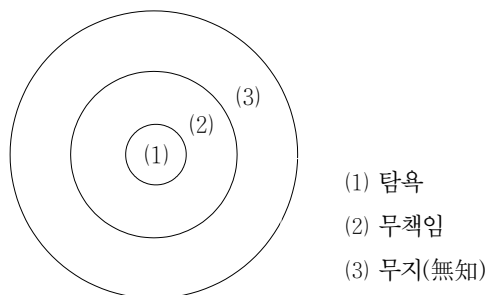
신화에서 악을 규정할 수 있는 판단의 잣대는 무엇인가? 먼저 신화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인물의 행위로부터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신화에서 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신화적 주인공이며, 주체가 대상을 어떠한 가치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악의 기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악인과 악행의 최초 발견은 신화적 주인공이 인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가 대상을 보는 감정에 따라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만일, 신화적 주인공이 대상에 대해서 ‘분노, 불쾌, 불길, 두려움, 근심’ 등 대상에 대해 부정(否定)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여의없이 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신화적 주인공이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감정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비록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라 하더라도 서사 안에서는 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현실의 논리로 선악을 구분 짓고, 이후 악인의 악행에 주목하여 악을 진단하는 것은 순환논증의 오류로 악의 대상을 도덕적 기준의 틀에서만 인식하고 속단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신화적 주인공이 어떤 대상을 부정하다고 인식한다면,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요인에 천착하여 악의 대상을 보다 신화의 논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에서 문제 삼는 악이 도덕적 기준에서 제시하는 악의 범

주에서 아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살인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제시하는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도덕적 신념에도 어긋난다. 곧 살인하지 말라는 명제는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행동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한 규범이 된다.

무속에서는 무엇이 악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신화적 주인공이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함의 감정을 따르며, 그러한 감정은 악의 대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하다. 이로써 신화적 주인공이 대상에 대해 추구하는 행위는 행위 이전에 일어나는 감각의 상태에서 악행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다. 주체가 느끼는 불쾌의 감정은 행위로의 이행을 추동하며 이로부터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⁹⁾ 앞서 살펴 본 <천지왕본풀이>에서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고 싶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핍감이 탐욕을 부추기고, 대별왕의 꽃을 빼앗는 행위로 이어진 것이 이와 같다.

일반신본풀이에서 신화적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시련을 겪게 하여 부정의 감정을 촉발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표-1】

9) 악인이나 악행에 대응하는 신화적 주인공은 악을 징치하는 과정에서 신성성을 획득하고 이는 신화의 중심 사건을 담당한다.

먼저 【표-1】에서 중심을 이루는 (1)에는 가장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탐욕이 차지한다. 이는 신화적 주인공에게 가장 강한 분노의 감정을 야기시키며 신은 그 대상을 향해 거친 폭력으로 응징한다. 여기에는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 그리고 <문전본풀이>의 주인공과 대립되는 인물과의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	감정의 주체	대상	악행
(1)	<초공본풀이>	젓부기 삼형제	삼천선비	삼형제 과거 방해, 어머니 감금
	<이공본풀이>	할락궁이	제인장자	어머니와 할락궁이 협박, 살인
	<문전본풀이>	늑디생이	노일제대귀일의 딸	속임, 재물 빼앗음, 살인, 음모

이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는 악인의 소행이 밝혀지고 난 후에 신의 과업을 받게 되는 공통적인 서사 구조를 따른다. 삼형제는 무조신(巫祖神)으로, 할락궁이는 서천꽃밭 주화관장신(呪花管掌神)이 되며, 늑디생이는 문전신(門前神)으로 들어선다.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는 삼천선비의 괴롭힘에 과거에서 낙방을 하고 친부를 찾아가 무조신이 되는 방도를 구한다. 그리하여 삼천천제석궁에 감금 되었던 어머니를 구하고 삼천선비를 징치하는데 성공한다. 삼형제가 삼천선비에게 느끼는 분노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고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 삼천선비는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과거에 급제한 삼형제를 시기하여 과거에서 낙방시키고자 그들을 비방하고, 삼형제의 어머니를 감금하여 결국 삼형제가 과거 급제를 포기하게 만든다. 여기서 삼천선비가 삼형제에게 저지른 악행은 과거에서 급제하고자 하나 자신의 능력이 삼형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결핍감에서 기인한다. 지나친 탐욕은 그 어머니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삼형제의 과거 급제를 빼앗는 행위로 나아간다.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는 장자의 횡포에 분노하여 친부를 찾아 집을 떠나면서 악인을 징치할 수 있는 신의 역량을 갖게 된다. 할락궁이는 친부로 부터 생명꽃과 멸망꽃을 구해서 장자의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장자에 의해 죽은 어머니를 살려낸다. 여기서 장자가 저지른 악행은 원강 아미를 향한 지나친 성적 탐욕과 그 욕망을 채우지 못했다는 결핍감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장자의 악행에 할락궁이는 크게 분노하였으며,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장자의 살인 보다 더 많은 장자의 가족을 죽임으로써 악행을 징치한다.

<문전본풀이>의 녹디생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빼앗은 노일제대귀 딸(노일의 딸)을 징치하는데 성공한다. 노일의 딸은 남편(남선비)도 없고 재물도 갖고 있지 않는 결핍의 상태에서 남선비를 찾으러 온 여산부인을 살인하는데, 이 역시 남의 남편과 재물을 탐하는 탐욕이 악행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유형에 속한 악인들은 공통적으로 신화적 주인공의 어머니를 괴롭히고(감금, 살해, 겁박) 신의 노여움을 사는 인물이다.¹⁰⁾ 이들의 악행은 신화적 주인공에게 직접적인 비난과 처벌을 받으며, 신화적 주인공 역시 악인을 살인하는 거친 폭력으로 대응한다.

(가) 양반(兩班)잡단 칼은 이른 닷단 칼(七十五尺刀) 이고 중인(中人)잡단 칼은 서른 닷단 칼이고 하인(下人) 잡단 칼은 홑단단(單五尺) 칼을 마련하

10) <차사본풀이>에서 과양생 처는 버무왕 삼형제의 재물을 탐하여 삼형제를 죽인 죄를 짓는다. 그리고 저승의 염라로부터 처벌 받아 과양생의 시체는 각다귀, 모기가 되어 날아간다. 다만, <차사본풀이>는 강님이 차사가 되는 이야기를 다루며, 과양생 처는 신화적 주인공인 강님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인물이 아니다. 과양생의 악행은 신화적 주인공으로부터 분노나 복수심을 야기하지 않으며, 강님에게 악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 배제하였다.

연, 이른덧단 칼로 시왕대반지를 무어 **삼천선비 양반의 원수를 가꿨수다.**

<안사인 本>¹¹⁾

(나) 신산만산한락궁이가 말을 흐되

“가문일문 족족이 모여오민 저가 나가서 여태가 벌어진 거들 드리리다”
흐니

제인장제가 직거지어서(기빠서) 가문가문 일문일문 족족이 매여오니
신산만산 한락궁이가 찾지는 웃음웃을꽃을 내어놓니 제인장제 덩덜이(무
리들이) 웃음을 웃어진다. 땀망악심수룩꽃을 놓니 **제인장제 덩덜이 모도 씨
땀망하는 구나.**

<고대중 本>¹²⁾

(대) 녹디생인이 성식을 발뚝 내땀 **노일제테귀일의 딸 선대자 머릿고빌 위
오는다 평평 감아** 흔텐데레 잡아 업질러 두고, 흔착 손에 애 식개씩 여섯꺄
쥬여아전 지붕상상 조추미를(상마루 맨 위 꼭대기)높은 곳 올라간

<안사인 本>¹³⁾

위의 장면은 신화적 주인공이 악인으로 주목받는 인물에게 분노하는 대목이다. 삼형제는 장검을 마련하여 삼천선비의 원수를 갚고, 할락궁이는 장자의 가족을 멸망시켰으며, 녹디생이는 노일의 딸의 머리채를 휘어 잡고 폭력을 가했다. 살인을 저지른 악인들이 모두 죽게 되는 징치의 방식에서 악행을 다스리는 강력한 신의 처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2)의 유형에 속하는 악행은 악인으로 지목되는 이들이 마땅히 따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무책임의 소산이다. 여기에는 <문전본풀이>의 남선비와 <삼공본풀이>의 강이영성부부가 있다. 이들은 모두 신

11) 현용준(2007), 앞의 책, 148쪽.

12) 장주근(2013), 앞의 책, 167쪽.

13) 현용준(2007), 위의 책, 344쪽.

화적 주인공에게 애통함의 감정을 야기하며 자식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이로부터 녹디생이와 가문장아기는 시련을 극복하여 신성한 존재로 거듭난다. 악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 깨달음을 일깨워 주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여기서 악인은 신화적 주인공에게 지탄(指彈)받는 대상이지 복수의 대상이 아니다.

	본풀이	감정의 주체	대상	악행
(2)	<문전본풀이>	녹디생이	남선비	처와 자식에 대한 무책임
	<삼공본풀이>	가문장아기	강이영성부부	자식을 버림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가장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가난한 살림에 쌀 밀천을 구하러 집을 떠나지만 아내와 자식의 안위를 잊고 악인(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꾀에 넘어가 갖고 있던 재물까지 모두 빼앗기고 봉사가 된다. 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여산부인이 죽고, 자식 칠 형제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한다. 남선비가 봉사가 된 상태는 본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리분별이 어두운 인물임을 말해 주며, 이러한 어리석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서사 장치가 된다. 이러한 모티프는 <삼공본풀이>의 강이영성부부에게도 나타난다.

(가) 남선비 약은간에도 아들 일곱 성제 살리려고 무곡치려 오랴다가 노일국 노일제대 홀림(괴임)에 들언 연삼년이 되어도 돌아가질 못하여서 오막살이에 거적문에 낭돌쳐귀에 쳇불(겨불)에 앞 숙이고 뿔뿔불에 등 쪼며 제죽단지(겨죽단지) 앞이 놓고 울엄서라. <신명옥 本>¹⁴⁾

14) 진성기(2016), 앞의 책, 120쪽.

(나) 강이영성과 흥운소친은 앓았다네, 큰딸아기 소식(消息) 엮고 셋딸아기 소식 엮어가난, “이게 어떤 일일런고” 문 밧겘데레 내든다가 문 옷지방에 눈이 걸련(걸려서) **안맹천지(眼盲天地) 되웁네다**. 강이영성이서불 흥운소친궁에궁은 앓아들서 먹고 입고 써 가난 재산(財産)이 탕진하여 **계와시(계지)로 나사간다**. <안사인 本>¹⁵⁾

(개)는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찾으러 떠나는 길에 지장 밭에 새를 다리는 아이가 말하는 대목이다. 동네에서 소문나기로 남선비가 노일의 껍에 빠져 삼년이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능하게 울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선비가 ‘울고’ 있는 상태에서 보여 주듯이 그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돌봐야 하는 소임(所任)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그의 막내아들인 녹디생이는 자신을 해치려는 계모와 이를 방관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남선비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나)에서 강이영성부부는 가문장아기의 비범함을 몰라보고 자식을 내쫓는 어리석은 부모이다. ‘누구 덕에 사는가’라는 부모의 물음에 ‘자기 덕에 산다’¹⁶⁾는 가문장아기의 대답을 듣고 딸을 버리는 매정한 부모이기도 하다. 부부는 가문장아기가 집을 떠난 후에 봉사(奉事)가 되고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후 가문장아기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혼자(孤身)가 되지만 막내 마통이와 혼사하여 부자가 되어서는 가난한 부모를 찾기 위해 걸인잔치를 마련한다.

두 본풀이에서 남선비는 문전신의 아버지이고, 강이영성 부부는 삼공

15) 현용준(2007), 앞의 책, 170쪽.

16) “죽은딸아기 이레 오라. 가문장아기, 너는 누계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 흐느냐?” 가가문장아기 말을 흐뵈, “하늘님도 덕이웨다. 지에님(地下一)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님도 덕이웨다마는 나 베포롱 알에(배꼽 밑에) 선그똥(선금)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흠네다.” “이런 불효막심(不孝莫甚)한 여즈식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고 가라.” (현용준(2007), 위의 책, 169쪽.)

신의 부모이다. 이들은 신화적 주인공의 어버이면서, 부모의 역할과 도리에 어긋난 행위로 서사에서 갈등을 빚고 신화적 주인공에게 애통함을 갖게 한다. 그들의 부덕(不德)한 행위는 신화적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사건의 발단이 되어준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내친 행위의 결과 모두 ‘가난’과 ‘봉사’라는 상태의 변화를 겪으므로 신화적 주인공에게 간접적인 처벌을 받는다. 신화적 주인공은 그릇된 부모의 행위를 스스로 뉘우치게 하여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인계함으로 갈등에 대처한다.

마지막으로 (3)의 유형은 신화적 주인공을 알지 못하여 무지(無知)로부터 야기되는 악행을 말한다. 무지한 인물은 신화적 주인공에게 불쾌감의 감정을 야기하며, 그로 인한 행위의 결과 대상은 재앙을 입거나 득병(得病)하게 된다. 불쾌감은 악이 될 수 있는 다른 감정들을 포괄하며 ‘더러움’, ‘불길함’을 내포하는 부정(不淨)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러한 감정은 신화적 주인공을 대하는 인물이 신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를 흉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들이 겪게 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은 <칠성본풀이>와 <사만이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본풀이	감정의 주체	대상	악행
(3)	<칠성본풀이>	장설룡따님야기	송영감, 잠수들	뱀을 업신여김
	<사만이본풀이>	백년 해골	사만이 부인	백년해골을 업신여김

<칠성본풀이>에서 장설룡의 딸과 그의 일곱 자식들은 뱀으로 화신(化身)하여 무쇠석함에 담겨 바다에 버려진다. 아래의 인용문은 무쇠석함을 발견한 송첨지 영감과 일곱 명의 잠수들이 뱀을 보고 더럽다고 여기고 내

어 던지는 대목이다.

궤문(궤작문) 여니까 그 속으로 나오는 건 보난 은이랑마랑 금이랑마랑
 눈은 헛득 새는 뿔록 배염이 오망오망 나오는구나. “요년들아, 요거 은가?
 요거 금가? 요것들 말아나라(받아가라)” 흐명 강당장은 담돌로 다랏기 마쳐
 부난 배염도 겁나고 사름도 놀래고, 잠수들은 “**투투 덜렀다**” 흐명 물레레
 팡팡 빠지난 손치도 쇠악 매역치도 쇠악, 잠수들은 “**아여기여 아여기여**” 흐
 명, 집테레 가난 **그날부떠 일곱 잠수들이 온 몸이 부석느작 부석느작 매날
 아파가고**, …(중략)… “어멍흐난 놈이나라(남의 나라) 칠성부군을 거셨구나.
 놈이나라 칠성부군을 본 죄로구나. 칠성부군을 발로 밟은 죄목이로구나. 칠
 성부군을 입으로 속담지죄목(俗談之罪目)이로구나” <이무생 本>17)

뱀을 던져 버린 이후로 송영감과 잠수들이 모두 병을 얻어 점쟁이를 찾
 아간다. 이후 점쟁이의 문복(問卜)을 통해서 이들이 부정(不淨)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이 칠성신을 박대(薄待)한 죄목으로 병
 을 얻었으므로 칠성을 위하여 굿을 하면 병이 나올 수 있다. 대상은 신성
 한 존재를 몰라보고 박대한 죄로 재액(災厄)을 입게 되었으므로, 굿이라
 는 의례를 통해 액운(厄運)을 정화(淨化)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같이 신이나 조상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여 화(禍)를 당하는 경우는
 <스만이본풀이>에서도 등장한다.

(개)“요놈은 백년대강이 나한테서 잘 얻어먹어져가난 무슨 따문 송시(홍사)
 를 들염시니?” 흐명, 부짓댕이로 태작흐연 보리왓디레(보리밭에로) 드리쳐
 부난, 그 날은 송스만이가 숲에서 애씨게 사농을 땡겨도 강녹(사슴)이랑말양
 생이(새)도 흐나 못마치난, “**어떠난 집이서 조상이 노혀신가꾸덴**”바를러

17) 진성기(2016), 앞의 책, 152쪽.

오라서 보니까 그 모양이 되었구나. <변신생 本>¹⁸⁾

(나) 주년국 소스만인 인정을 잘 거난 맹이 길어서 스만오천육백년을 살고 오만골 오스만인 인정을 아니걸어부난 본맹(本命)에 가질 못흐연 서른식에 스고전맹 당흐였수다. 그 법으로 금시상 우리 인간백성에 인정을 잘 걸민 천맹보전(天命保存) 시켜 줘네다. <한태주 本>¹⁹⁾

사만이는 산에서 발견한 백년해골(百年骸骨)을 집으로 데려와 조상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냈더니 점차 부자가 되어 간다. (가)는 해골이 사만이 부인에게 사만이의 정명(定命)이 서른 살이라는 말을 전하자 화가 난 사만이 부인이 해골을 ‘태작’하여 보리밭으로 던져 버리는 대목이다. ‘해골’이라는 조상신을 잘 섬기지 못한 죄로 그날은 사만이가 사냥을 열심히 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나)에서 소사만이 부인과 사만이는 ‘인정을 잘 걸어’ 연명(延命)할 수 있고 죽음의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정을 아니 걸면’ ‘사고전맹’을 당하여 죽음 위기에 처한다. 여기서 ‘인정’은 굶을 할 때 재화(財貨)를 드려서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정성을 의미한다. 인정을 아니 걸고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행위는 신의 노여움을 사는 결과를 초래한다.

<칠성본풀이>와 <스만이본풀이>는 인간이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질병이나 죽음과 같이 액운이 따르는 것은 보여준다. 또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재물을 얻지 못함도 이들이 신을 박대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두 본풀이에서 공통적으로 신을 잘 섬기지 않는 것은 재액을 당하는 화근(禍根)이 됨으로 악의 특성을 따른다.

18) 진성기(2016), 앞의 책, 172쪽.

19) 진성기(2016), 위의 책, 193쪽.

그런데 송영감이나 사만이 마누라는 신화적 주인공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였기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점쟁이나 사만이와 같이 보조적인 인물이 그 재앙의 원인을 알려주어 행위의 그릇됨을 깨닫게 한다. 신화는 무지한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굿이나 제사와 같이 의례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상으로 일반신본풀이에서 악이 될 수 있는 인식의 기저에는 탐욕과 무책임, 무지(無知)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악행의 양상을 신화적 주인공의 감정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신화적 주인공의 감정은 담화에서 직접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가 대상을 향해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화적 존재가 감지하는 감정의 추이(推移)에 따라 악의 개념을 검토할 때에 악은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질을 갖추게 된다.

또한 탐욕과 무책임 무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행과 악인으로 지목되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결핍'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1)은 남들에게는 있으나 자신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결핍감이 지나친 탐욕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탐욕이 살인과 폭력을 수반하는 악행으로 이어졌다. (2)는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책임 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며, (3)은 무속신을 섬길 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3. 신화의 논리로써 악(惡)의 메타 의미

일반신본풀이에서 제시하는 악의 개념이 그대로 사회·문화적인 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화는 세계의 시원(始原)과 근본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는 신화로부터 악의 원형을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무속신화와 제의를 통해 인간은 나쁜 것을 멀리하고자 시도하며, 공동체의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당한 원칙을 욕망할 수 있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에 대한 욕구가 도덕적 선에 대한 욕구를 넘어설 때 바로 악이 싹튼다.”고 말한다. 신화의 전승집단은 저마다 기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을 모신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의례에서 신과 소통하는 것을 시도하는 인간의 행위는 행복에 대한 추구를 전제로 한다. 이때 악이 발생하는 것을 지나친 인간의 욕망에서 찾는다는 칸트에 관점을 따르면, 중요한 것은 무속에서는 무엇을 ‘도덕적 선’이라고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 악을 지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풀이에서 제시하는 선(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 무속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기피하는 악은 무엇이며, 무속은 악을 떨리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악의 유형을 통해 무속에서 기피하는 악의 메타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1>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1)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신화적 주인공에게 비난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한다. 이때 신화적 주인공이 분노하고 비난하는 악인의 주된 행위에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이 있다. 이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며 생명의 존속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삼천선비는 삼형제의 어머니를 삼천천제석궁(三千天帝釋宮)에 가두어 노가단풍자지멩왕아기씨의 목숨을 위협했다. 제인장자는 할락궁이의 가출을 탓하여 원강아미를 죽이고, 노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주천강 연못에 빠트려 죽게 한다.

이들의 행위는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여 정명(定命)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즉, 남의 목숨을 빼앗은 삼천선비와 장자, 그리고 노일의 딸은 신화적 존재로부터 가장 비난 받는 악인으로 지목된다. 무속의 신들은 이러한 악인의 행위를 가장 강한 처벌로 응징하고 악인을

죽임으로써 악의 근절을 꾀하고 있다. 살인은 무속이 본디 추구하는 ‘생명 중시’사고에 배치되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실에서 신화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늘날 무속이 갖는 여러 기능 가운데 개인적 기능이란 개인의 길흉화복에 관한 것을 말한다.²⁰⁾ 무속 의례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여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떡고사는 문제’ 즉, 생(生)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례를 통해 풍요를 기원하거나 액막음을 통해 악귀를 쫓는 제액 축귀의 무당굿놀이²¹⁾는 재앙을 예방하고 퇴치하여 잘 살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의례를 행한다.

무속에서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는 의례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제시하는 심방의 사설은 ‘인간 목숨’을 중히 여기는 무속의 가치관을 대변한다.

옛날옛적 공자(孔子) 성인법(聖人法)으로 천지기간 만물지중 유인체구(唯人最貴) 흠고 소기오는 인자(所貴乎人者) 오룬짓(以其有五輪)가운데, 하늘 땅 새 귀중헌 건 **인간 목숨 뺏기 귀중 게 있소리라**. 천금(千金)에도 **중(重)하고 만금에도 중헌 건 인간에 사름의 목숨이라**. 우리 인간의 목숨은 도란(土卵) 앞에 이슬 7뽕 인생(人生)이 뒹웁네다.

<초감제 中 집안연유담>²²⁾

20) 국사편찬위원회, 『무속, 신과 인간을 잇다』, 경인문화사, 2011, 9쪽.

21) 풍요 기원의 무당굿놀이는 풍농(豐農), 풍어(豐漁), 다산(多産), 다복(多福)등을 기원하며 행해지는 무당굿놀이이다. 농사짓기, 고기잡기, 사냥하기, 애낱기, 복을 불러들이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방 행위나 유감 주술적 기원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제액 축귀의 무당굿놀이는 재앙을 예방하거나 직접적인 퇴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실제 삶에서도 그러하기를 기대한다. (국사편찬위원회 (2011), 위의 책, 17쪽.)

초감제는 모든 의례의 첫 부분에서 신을 청하여 맞이하는 청신(請神) 제차이다. 초감제를 구성하는 소제차(小第次) 중에서 굿을 하는 사연을 낱낱이 고하는 것이 집안연유담음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심방은 오륜²³⁾ 가운데서 '인간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신에게 굿을 하는 연유를 소개한다. 무속에서 '인간의 명(命)'이 유교적 윤리 보다 선행(先行)하며, 천금과 만금에 비유하는 재물보다도 중(重)하게 여긴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 그것이 의례를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폴 리콤프에 따르면 '신화는 '이야기라는 말의 형식'을 빌려 어떠한 '원형을 모방하고 재현'한다.²⁴⁾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신화의 사건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인의 행위를 통해 악의 개념을 재현하고 이로 부터 생명 중시 사고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유형(2)에서 남선비와 강이영성부부가 부모의 도리를 하지 못하여 무책임한 행위로 가족 공동체를 위기에 빠트린 악행에 주목하였다. 녹디생이는 노일의 꺾에 속아 자식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으며,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아서 부모의 잘못을 누우치게 한다. 신화는 부모에게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우며 가족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때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작은 집단으로서 가족의 붕괴는 사회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한다. 신화에서 남선비와 강이영성부부가 자식에게 행한 그릇된 태도는 가족의 해체를 야기하지만, 부모로 인해 시련을 겪는 신화의 주인공은 부모의 잘못을 일깨워 가족 구성원의 합일을 지켜낸다.

22) 현용준(2007), 앞의 책, 48쪽.

23)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덕목은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리키며, 이는 유교 윤리설의 근본을 이룬다.

24) 폴 리콤프, 양명수 역,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163~164쪽.

부모에게 버림받는 인물은 <세경본풀이>에서도 등장한다. 자청비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정수남이를 죽이고 그 죄로 부모에게 버림받지만, 이후 자청비는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신을 속인 정수남이를 다시 살려 낸다. 자청비의 부모는 딸의 안위보다도 자신을 위해 일하는 하인에게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신화에서 부모의 잘못된 행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통해 볼 때 무속에서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가족의 해체를 야기시키는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는 신화적 주인공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악의 특성을 담고 있다. 무속의 신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애통함의 감정을 갖고, 부모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묻기보다는 지혜와 자비(慈悲)로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3)에서 제시한 악의 특성은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정성이 부족함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칠성신을 박대한 송염감과 잠수들, 그리고 해골을 잘 모시지 못해 불운을 겪는 사만이의 서사에서 인간은 신을 잘 섬기지 않을 때 화를 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행위를 통해 의례의 중요성 및 효험(效驗)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은 지속적으로 신과 소통해야 함을 전제로 전승자들에게 무속신을 섬기는 신뢰의 기반을 마련한다.

조상에 잘 못흔 일이라도 한번참만 풀려줍서, 인간 백성 무슨 때(時) 알멍 무슨 철을 아오리까. 무쇠술에 화식(火食)먹어 배가 고프 줄 아오요고, 옷입어 등 따스운 줄 아는 인간 백성 아니오리까. 누운 채로 침을 뱉어 나 위에 질 줄 모른 인간 아넵네까. 그만흔민 하늘 노프고 땅 낮은 줄 아오리다. 한강 물 많이 먹어 짜고 싱거운 줄 가(可)이 아오리다. 살려주다 남은 결랑 날로 날역(日厄)을 막아 줘서. 들도 들력(月厄) 막아줍서.

<추물공연 中 비넵>25)

위의 인용문은 추물공언에서 신에게 굿을 하여 기원하는 바를 비는 대목이다. 인용문에서 심방은 ‘인간이 지은 죄를 빌어주고, 액(厄)을 막아 달라’고 한다.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은 신을 섬기지 못하는 무지(無知)함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칠성본풀이>에서 송영감과 일곱 잠수들이 칠성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럽다 여긴 죄목(罪目)과 유사하다. 또한 <사만이본풀이>에서 사만이 부인은 백년해골이 흉한 것을 가져다주는 흉물(凶物)이라 여긴 탓에 조상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이후 송영감이 칠성굿을 한 것과 사만이 부인이 백년 해골을 위해 제사 드린 것처럼,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의례를 통해 병도 낫고 재물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이 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은 다시 신을 신뢰하는 의례로써 부정(不淨)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례에서 심방은 조상에게 지은 죄를 고하여 액막음을 시도한다. 실제로 칠성새남은 뱀으로 인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치병의례(治兵儀禮)에 해당한다.

이처럼 본풀이와 의례에서 악에 대한 개념은 악인의 행위를 다스리는 신의 행적을 통해 재현한다. 신화의 주인공이 경험하는 서사의 내용마다 악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신이 악인의 악행에 대응하는 방식은 공통적으로 무속에서 중시하는 규범 및 질서를 표방하는데 이바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 개념은 사회와 가족, 신앙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해악이 되는 것으로써 무속에서 기피하려는 악의 구체적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25) 현용준(2007), 앞의 책, 74~75쪽.

4.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를 대상으로 본풀이에서 제시하는 악의 기원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신화적 존재가 지각하는 감정으로부터 악의 양상과 메타 의미를 살펴보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소별왕이 다스리는 이승은 살인과 역적 등 남의 것을 빼앗는 악행이 만연하다. 이러한 악의 출현은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지나친 탐욕이 부른 행위의 결과이며, 결핍의 상태에서부터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외의 일반신본풀이에서 신화적 주인공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과 가족 공동체의 위기를 일으키는 악,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무속신화에서 악이란 무엇이며, 악한 것에 대한 무속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풀이가 단순히 이야기로써 전승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전승집단이 사유하는 방식과 함께 신화의 논리 안에서 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무속의 악(惡)은 무속신앙과 무속문화의 전승에 기대어 윤리적인 가치관 및 규범의 확립에 이바지한다.

또한 신화에서 악에 대처하는 신화적 주인공의 대응방식은 무속이 갖는 종교적 신념과 인간 행위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작용하는 사고의 기틀을 마련한다. 아울러 무속에서 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하여 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무속의례가 지향하는 가치를 사유하는 수단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무속이 추구하는 것들에는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 전자는 신화 세계의 초월적인 영역에서 가치를 담당한다면, 후자는 전승집단이 사유하는 경험 세계에서 작용하는 가치를 말한다. 신화는 악의 개념을 통해 이 둘의 간극을 좁히고

신화에서 보여주는 악행들이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전승집단은 신화에서 경계하는 악의 개념을 인식하고 금기의 내용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화를 현실로부터 실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악인으로 지목되는 인물들의 행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초월적인 신 앞에서 언제나 결핍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신을 청해 모시고 인간의 정성을 바쳐 의례를 행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풀이에서 신의 행적을 통해 결핍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악을 이해하고, 무속이 추구하는 가치를 선(善)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참고문헌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쪽.
-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민속원, 2013, 1~290쪽.
- 진성기,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1~922쪽.
- 국사편찬위원회, 『무속, 신과 인간을 잇다』, 경인문화사, 2011, 1~290쪽.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1~395쪽.
- 신연우,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실천민속학 연구』 26집, 실천민속학회, 2015, 69~94쪽.
- 이강엽, 『고전서사의 해석과 교육』, 보고서, 2012, 1~439쪽.
-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노일계대귀일의 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179~197쪽.
- 조현설, 「한국 창세신화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문제」, 『동아어문학』, 41집, 동아어문학회, 2003, 225~269쪽.
- 나카지마 요시미치, 박미정 역, 『악(惡)이란 무엇인가』, AK커뮤니케이션즈, 2016, 1~194쪽.
- 프랑소와 뽀띠, 강성위 역, 『악이란 무엇인가?』, 이문출판사, 1984, 1~196쪽.
- 폴 리콥르, 양명수 역,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1~330쪽.
- 테리 이글턴, 오수원 역, 『악: 우리시대의 악과 악한 존재들』, 이매진, 2015, 1~204쪽.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and Meaning of Evilness through
Shaman Epic in Jeju Island

Kang, Ji-youn

With the fact that myth gives human beings behavioral norms in mind, this study focuses on the meaning of evilness in order to define both what deeds shamanism myth deals with significantly and fundamental features of those deeds. By focusing on causes of what brings about unpleasant feelings,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evilness so as to figure out what deeds main characters in Jeju bonpuri define as evilness and how they avoid them. In analyzing this, the way they control evilness in shamanism can be understood, and moreover, the definition of virtue that shamanism pursues can be identified.

In *Cheonjiwangbonpuri*, a story about a god who governs earthly world, evilness stems from the feeling of lack, which arouses such emotions as greed and violence that make one extort and destroy things.

These evil deeds hinder society, family, and religious community from continuing to exist. In shamanism myth, gods present the value of shamanism and put importance on the moral values through evilness. Also, they display vigilance on evilness that destroy these values and forbid evil deeds.

In shamanism myth, there are other things that are defined as evil deeds. First, it is unethical deed of parents who do not conduct their roles as parents and do things against family ethics. Second, ignorant attitude of ordinary human beings who do not obey gods properly is considered evil deed. All of their deeds give ordeal to mythical characters and by overcoming this ordeal, mythical characters' sacredness is realized.

Consequently, evilness that shamanism myth deals with goes forward by transforming the state of disorder and chaos into that of order and

organized. Through this, it promotes stability of society, family, and religious community, and deals with the essence of world that shamanism pursues.

With the fact that myth gives human beings behavioral norms in mind, this study focuses on the meaning of evilness in order to define both what deeds Shaman Epic deals with significantly and fundamental features of those deeds. By focusing on causes of what brings about unpleasant feelings,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evilness so as to figure out what deeds main characters in Jeju bonpuri define as evilness and how they avoid them. In analyzing this, the way they control evilness in shamanism can be understood, and moreover, the definition of virtue that shamanism pursues can be identified.

In *Cheonjiwangbonpuri*, a story about a god who governs earthly world, evilness stems from the feeling of lack, which arouses such emotions as greed and violence that make one extort and destroy things.

In Shaman Epic, there are other things that are defined as evil deeds. First, it is unethical deed of parents who do not conduct their roles as parents and do things against family ethics. Second, ignorant attitude of ordinary human beings who do not obey gods properly is considered evil deed. All of their deeds give ordeal to mythical characters and by overcoming this ordeal, mythical characters' sacredness is realized.

These evil deeds hinder society, family, and religious community from continuing to exist. In Shaman Epic, gods present the value of shamanism and put importance on the moral values through evilness. Also, they display vigilance on evilness that destroy these values and forbid evil deeds. Through this, it promotes stability of society, family, and religious community, and deals with the essence of world that shamanism pursues.

Key Words evilness, Evil deeds, Jeju bonpuri, Community, Order, Shamanism, World view

논문투고일 : 2018.07.20

심사완료일 : 2018.08.14

게재확정일 : 2018.08.24